

22장 언약의 책 (2) - 혼인, 우상 숭배, 약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2장 후반부에서는 혼인, 간음, 약자 보호 등의 규정을 가르친다. 지참금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러 규정들의 근거는 여호와와 구원하심과 거룩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었다.

1. 혼인과 지참금 (22:16-17)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례를 말하다가 혼인에 관한 주제가 나온다. 찬찬히 보면 여기에서 혼인에 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지참금(빙폐, 혹은 지불금)과 관련된 규례를 주었다. 남자가 여자를 꺾어서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갔어도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도록 하였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혼인을 허락하지 않아도 그 처녀에게 지참금의 형식으로 돈을 주도록 하였다. 신명기에서는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하도록 하였다(신 22:28-29).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또한 경제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이러한 규례에서 볼 수 있다.

2. 간음과 우상 숭배 (22:18-20)

18-20절은 ‘우상 숭배 금지 - 짐승과 행음 금지 - 우상 숭배의 금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8:23-25에서는 가난한 땅에서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결과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고 하였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규정이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멸하라”는 규정이 너무 심하게 여겨질 수 있다. 여기에서 ‘멸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렘’이다. ‘헤렘’은 단순히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리고성을 멸하는(헤렘) 것은 그 성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상 숭배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데에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성적 타락이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우상 숭배와 난잡한 성행위를 금지하셨다.

3. 약자 보호 (22:21-27)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다. 첫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근거는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22:21).

둘째,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압제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압제하는 자는 여호와와 징벌로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아내와 과부가 되고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실 것이다(22:22-24. 참조 시 109:9-10).

셋째,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며,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서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의 겹옷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겹옷이 이불로도 사용되었는데 겹옷이 없다면 저녁에 잘 쉴 수 없을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였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와 자비하심에 참여하는 특권이다.

4. 여러 규정 (22:28-31)

재판관을 욕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21-22장에서 ‘재판관’은 ‘엘로힘’을 번역한 말이고(21:6; 22:9),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들이 판결한 것은 그대로 효력을 지닌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행하는 재판관을 저주하는 것, 곧 그의 존재와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22:8).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에 관하여 가르친다. 소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착취하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밭과 포도원에서 처음 결실한 것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였다.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대속하도록 하였고(출 13:13), 장자들을 대표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소와 양의 첫 소생도 주님께 드리되 8일째 되는 날에 바치도록 하였다. 짐승이 태어나자마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일이 되었을 때에 드리도록 하였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할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드렸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서 짐승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그들의 생활 전반을 이끌어 가도록 하려고 이러한 규정도 주신 것이다. 피를 마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셨고, 또한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시면서 대속의 피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이다.

묵상과 실천: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22장 후반부에서는 혼인, 우상 숭배, 간음, 약자 보호 등의 여러 규례가 서로 연결하여 제시되었다. 법조문을 따라서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러 규례도 서로 연결하여 제시된 것이다.

여러 규정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22장에서는 세 경우를 들어서 약자를 돌보도록 하는데 (22:21-27), 여기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실을 지적한다. 둘째, 과부나 고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잘못된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 일은 경제적인 손해를 받는 일이고 전당물로 잡은 겉옷을 저녁 전에 돌려주는 것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 놓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22:27)는 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빌려준 돈을 늦게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권한다.

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기를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발 노릇을 잘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22장 (2) 익힘 문제

1.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절)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8-20절)

* 무당

* 짐승과 행음하는 자

*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

3.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2) 다음 문장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22,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3)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무엇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5절)

- 4)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언제까지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26절)
4.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백성의 유사를 위해 백성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 2) 소와 양은 여호와께 드릴 경우 얼마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0절)
- 3) 하나님께서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31절)